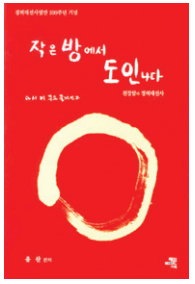


# 한국 불교에 던져진 뜨거운 질문 '경허'



**작은 방에서 도인 나다**  
웅산 스님 지음  
해민기획 펴냄  
8천원

“1880년(고종 17년) 봄에 동학사를 떠난 경허당 성우 선사(1842~1912)는 오후(悟後) 보림(保任)을 하기 위해서 충남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에 있는 연암산 천장암으로 오셨다.”

책은 경허대선사열반 100주년을 맞이해 경허 스님이 18년 동안 주석했던 천장암에서의 법문, 일화, 행장기 등을 모아 엮은 것이다.

“경허 스님은 500여 년 동안 계속된 조선 폐불 암흑기에 이 땅에 오셔서 불교 속에 응해되어 있던 봉건적 잔재를 깨부수고 오염된 조선불교를 씻어내는데 앞장섰던 선각자입니다. 즉 경허 큰스님은 갯밭에만 골뎠하며 묵묵히 두드리던 조선 말기 불교계에 선의 정신과 선종교단으로 한국 불교가 지녀야 할 전통의 복원을 도모한 한국 불교의 중흥 조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수월, 해월, 만공 같은 선사들이 수행했던 천장암은 근세 한국에서 가장 치열한 구도의 불꽃이 튀었던 역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말이다. 한국 근대불교사에서 ‘경허’는 그 어떤 이름보다 뜨거운 이름이다. 그의 ‘무애행’은 후학들에게 책 한 권을 더 없었다. 한국불교사에 던져진 뜨거운 질문 ‘경허’ 그의 숨소리와 같은 법문과 일화들이다.

“한곳에 안주하실 때는 잡수시는 것은 겨우 접기(接氣)만 하시고 종일토록 문을 닫고 앉아서 침묵과연(沈默寡言)하셨으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셨다. 혹



경허 스님이 머물렀던 천장암의 작은 방

사람들이 큰 도시에 나가서서 교화를 펼치시라고 권하면 곧 ‘나에게 한 가지 서원이 있으니 밤이 경성방을 밟지 않는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그 굳세고 탁월하신 바가 이와 같았던 것이다. 한 번 좌선에 드시면 여러 해를 지내기를 마치 순간을 지내듯이 하시다 하루아침에 시 한 편을 지어 읊으셨다.” 저자인 웅산 스님은 구한말 경허 선사의 수행담을 시 한편으로 요약했다.

세상과 청산 어느 것이 옳은가  
봄 광명 없는 곳에는 꽃도 피지 않더라  
만약 누가 성우의 일 묻는다면  
석녀의 마음속에 겁을 밖의 노래라 하더라.

저자는 이 계승을 “봄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심광(본마음)이며 나의 본분인데 내마음 없는 곳에는 불법도 없고 세상법도 없으며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요하니 번다한 것이다. 그런 봄 광명을 하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닦아가는데 그 보고 싶은 봄광명을 봤다고 하면 거기에는 부처가 있을 수 없고 중생이 있을 수가 없다.”고 풀었다.

이 계승은 천장암 작은 방에서 나왔다. 겨우 사람하나 누울 자리다. 스님의 진영이 걸린 그 작은 방, 스님은 ‘경허’ 외에는 들어올 수 없는 작은 방에서 보림을 한 것이다.

천장암에서 주석하실 때에 한 번 누더기 옷으로 차가운 겨울이나 찌는 듯한 여름이나 한 번도 갈아입지 않고, 모기와 빈대가 몸을 찌르고 이들이 옷에 착 차 밤낮으로 침노하여 뜯어 먹음으로 온몸이 헐어서 벗겨져서 적념한 자세를 움직이지 않음이 높은 산과 같았으며, 어느 날 구렁이가 뚫고 들어와 어깨와 등에 올라가 서리고 있음을, 곁에 사람이 깜짝 놀라 알려 주어도 태연히 마음에 조금도 동요가 없이 무심하다고 한다. 책은 천장암에서의 스님의 행적을 일화와 말씀을 중심으로 이어간다.

저자 웅산 스님은 ‘경허’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한다. “경허 스님은 철저한 구도정신으로 일관하여 깨달으신 분이다. 깨달은 분의 행동의 무애행이다. 깨닫지 못한 법인이 무애행에다 계율의 갖대를 들이대는 것은 진실을 어떤 목적 때문에 오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깨닫지 못한 이가 깨달은 이의 무애행을 흉내 내는 것은 응당 경계해야 할 과오지만 그 책임을 선각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 과오는 그것을 행한 개인의 문제다.” 후학은 한국불교사의 두툼한 책 한권, ‘경허’를 그렇게 읽어 주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 아이와 부모가 함께 배우는 ‘8가지 바른 길’

불교동화 18

다르마차리 나가라자 지음 | 이은숙 옮김  
불광 펴냄 | 1만4천원



이 동화는 자타카, 즉 부처님의 전생이 야기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으로 삶의 지혜와 도덕적 가치를 전승하는 이야기로 이뤄져 있다.

불안감에 떠는 어린 말이 생각을 다스리게 되는 이야기, 명상으로 도둑 떼를 물리치는 소년 이야기, 돈 버는 일이 행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끈 끈 단게 되는 수전노 이야기, 무례하고 제멋대로였던 공작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가치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 등 광범위한 등장인물과 배경이 표현돼 있다. 특히 각 이야기들은 팔정도(八正道) 중 하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전작인 《지혜가 속속 자라는 명상동화 20》과 마찬가지로 부처님 전생 이야기서 영감을 받아 요즘 아이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재미있는 요소를 많이 첨가했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는 모두 삶의 지혜와 도덕적 가치를 전하는 전승 이야기이며, 특히 팔정도(八正道), 즉 ‘깨달음과 열반으로 가는 여덟 가지 바른길’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팔정도는 친절하고 자비롭게 행동하는 것, 신중하게 말하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 의지로서 생각을 다스리는 것 등 일상생활의 행동 규범을 제시한다.

이 책은 잡자리서 부모가 아이에게 읽어 주는 동화책이다. 이 방식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아이에게 철학적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아이가 편안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는 구전 전통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책의 이야기는 아이의 집중력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가 배경, 등장인물, 사건을 마음에 그리게끔 이끌기 때문에 아이를 편안하고 차분한 상태로 만들어 준다. 무엇보다 이 책의 장점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불교 동화를 읽으면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깨달음을 얻는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불교적 삶의 근본 원칙은 팔정도로 요약된다. 부처님 스스로 팔정도를 삶의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표현했다”며 “이 책에 실린 각각의 이야기는 팔정도의 원칙중 하나를 토대로 아이들에게 팔정도의 참뜻과 가치를 이해하도록 도왔다. 팔정도의 여덟 가지 원칙은 지혜, 도덕, 집중이라는 세 주제로 묶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야기를 읽은 후 자연스럽게 아이를 명상으로 유도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를 위해 책 뒷부분에 아이와 함께 할 수

### 부처님 전생이야기 바탕으로 재구성

### 아이들 흥미있는 요소 많이 첨가

### 아이와 함께하는 유도 명상도 수록

있는 쉽고 재미있는 유도 명상이 수록돼 있다. 익숙해지면 아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혼자 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부모가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함께하면 유익할 듯 싶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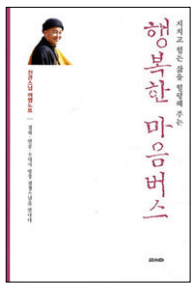
### ▲저자 다르마차리 나가라자는?

BBC 라디오 2에서 방송된 테리 워건 쇼의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코너에 고정 출연해 불교 전래 설화를 통해 770만 영국 청취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다. 1988년에 불자가 된 그는 1993년에 서구불교종단으로 출가했고, 그 후 20년 가량 런던서 코넬트 가든 명상센터를 운영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최근에는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글래스고우포교당에서 심리요법사로 일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 법복 속에서 자란 ‘진관’의 생각들

행복한 마음버스

진관 스님 지음 | 레슨 펴냄 | 1만천원



간간히 들리는 두견의 노래  
깜빡 졸음 깨우네  
찾은 이것이 무엇인가  
이뵈고 이뵈고  
조는 듯 내려 감은 눈  
흐르는 미소

요즘 소식을 몰으니 새벽에 일어나 시를 쓴다고 했다. 시인이기 때문이다. 언어로 짐을 짓는 일이다. 삶의 현장에

서 보았던 것들을 꼭꼭 눌러 표시하고 있었다.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와 불교평화운동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진관 스님의 시와 글을 담은 책이다.

《행복한 마음버스》의 원고에는 희망과 미래에 대한 단어가 많다. 잠재적 실현 의지이자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 비결은 서로 이해하고 배우고 선택해 적용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 배우고 가르칠 것들이 있다고 믿는다. 또한 진관 스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인권운동가로 누구보다도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기에 늘 인권운동의 맨 앞줄에 서야 한다. 책의 앞쪽에는 충남 예산에 있는 덕숭총림을 찾아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을 만나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에 대해 듣는다.

시가 생각나서, 풀잎의 연가, 그리운 당신에게, 달빛에 기대어, 행복한 마음버스 등의 글을 만날 수 있으며, 법산, 지원, 김원길, 최승은 등 스님의 생각을

들은 지인들의 글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부모와 가족, 스승과 친구 그리고 사회와 만나고 이성과 만나 생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끝내는 죽음을 통해 돌아간다. 이 많은 만남 중에서 불연으로 도반이 되어 같은 길을 가는 인연이야말로 지중한 인연이라 생각한다.

진관 스님과 나는 대학시절 기숙사에서 만나 40여 년 수행과 문학으로 한길을 걸어오고 있다. 진관 스님은 그간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많은 고초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약자편의 인권운동으로 누구보다 민중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알기에 우리의 소중함 스님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진관 스님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의 글이다.

법복 속에서 자란 스님의 생각들이다.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시간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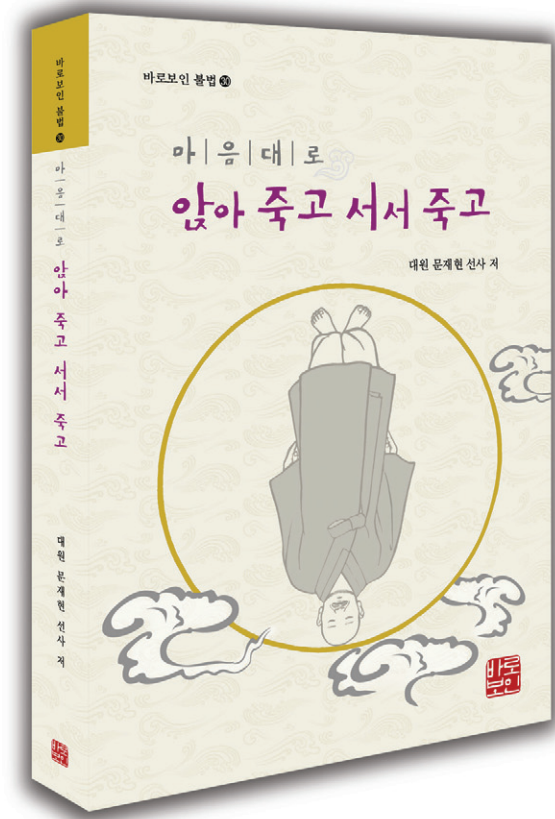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2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공헌자사
3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4	뒤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웅화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샘앤파커스
6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7	지혜로운 삶(우학스님 신심명 강설)	우학	좋은인연
8	그대 보지 못했는가(서암 큰스님 회고록)	서암	정토출판
9	틱낫한 명상	틱낫한	불광출판사
10	오늘도 두려움 없이	틱낫한	김영사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 오직, 불법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대원 문재현 선사의 저서인 이 책은 생사를 자재한 분들의 앉아서 열반하고 서서 열반한 내력은 물론 그분들의 생애와 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수록해 놓았다.

부처님께서서는 불가의 이러한 열반과 신통을 명예욕이라고 하여 밖으로 들추지 말라고 하셨다. (중략) 우리를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자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가 될 것이다.

일러두기 중에서...

☎ 031-534-3373 / 010-9043-1016



## 대원 문재현 선사의 저서 59권 (30종)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세월을 복채로 세상을 복삼아 / 영원한현실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21권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복산에 찻는 희다 / 바로보인 중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운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 바로보인 법성계 / 달다 / 기우묵동가 / 초발심자문 / 방거사어록 / 실종설 / 하택신화대사 현종기 / 불조정맥(한영종 3개국어) / 바른 불자가 되어 / 구유공단 33어 / 108천처문(한영종 3개국어) / 달마의 일화도 허락지 않는다 / 마음대로 앉아죽고 서서죽고